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2003년부터 제작된 '1년 주기 리듬'. 북극 원주민인 이누이트인의 신체적 본질을 담담하게 영상으로 담았다.



순록 모형들을 공중에 거대한 원형으로 설치한 작품 '원격 감지' 앞에 선 마이클 주.

경계 그 너머... 안은 어디고 밖은 어디인가

올 광주비엔날레 대상 작가 마이클 주 개인전



가부좌를 틀 '불두' 없는 부처는 투명하게 속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눈에 보이는(Visible)'을 통해 마이클 주가 보여주는 '경계가 있으되 소통하는 경지'를 느낄 수 있다.

투명하게 속 내장까지 드러냈는가 하면, 광활하게 펼쳐진 벽면 속 영상은 산길과 소금을 형상화해낸다. 12월 1일부터 서울 태평로 로댕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마이클 주 개인전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충격을 맛볼 수 있다. 내년 1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그동안 비엔날레, 기획전 등을 통해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됐던 작가 마이클 주의 15년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내년 1월 28일까지 로댕갤러리

90년대 후반 불교·동양사상에 빠져 불상 작품소재로 꾸준히 사용

투명피부에 내장 보이는 부처 등 다양한 시각적 충격 느낄 수 있어

첫 개인전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 비디오를 장착한 불상작품으로 대상을 받아 국내 관객들에게 폭넓게 알려진 마이클 주가 15점의 작품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하는 작품은 투명한 피부의 부처를 구성한 '눈에 보이는(Visible)', 알루미늄 비행기 동체에 그린 '몽골족-버튼 B-29' 미스 미국, 비디오 영상 '소금이동의 순환', 3채널 비디오 프로젝션의 설치작품 '1년 주기 리듬', LCD모니터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한 '원격 감지' 등 독특한 개성이 드러난 작품이다. 기획전시 공간 앞의 글라스 파빌리온에 대형 작품 '원격 감지'를 배치하고 전시장의 입구에 작품의 일부인 모니터들을 설치해 전시장 안팎의 연결을 꾀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제작된 비디오 작품 '1년 주기 리듬(리듬리듬)'은 마지막 전

시장의 대지를 주제로 한 신작과 소통한다. 그 사이에 배치된 작품들은 1990년대의 대표작들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199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의 신작까지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을 연대기별로 늘어놓지 않았다. '경계의 이동과 순환'을 추구해온 작가의 예술 이념을 기반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관람 포인트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워싱턴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예일대 미술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한 마이클 주. 인종적 정체성의 문제에서 작품의 모티브를 잡기 시작해 인간과 환경, 자연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맥락으로 깊고 넓게 작품 영역을 넓혀왔다. '수정 울가미(1999)'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울가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매듭 위에 인공적으로 수정을 자라게 해 죽음의 상징과 태어나고 성장하는 실재를 결합시킨다. 그가 드러낸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불교와 동양사상에 빠진 마이클 주는 이 무렵부터 불상을 작품의 소재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시작 '눈에 보이는(Visible)'은 그가 던지는 '화두'다. 해부학 모형처럼 뼈와 내장이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피부를 한 무명부처는 활로 만든 정육면체 틀에 갇혀있다. 영적인 존재인 존엄한 부처의 해부학적 신체 구조 즉 육체성이 강조된 이 작품에서 마이클 주는 관객들에게 신체 내부와 외부의 경계인 피부는 존재하면서도 동시

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경계를 상호 흐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마이클 주에게 경계는 존재하되 소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안팎이 없는 경지, 마이클 주가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던지는 '화두'다. 전시시간 중 평일 오후 2시, 4시,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로댕갤러리를 찾으면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경계를 넘어선 경지를 체험하려 전시장에 가 보는 것은 어떨까. (02)2259-778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가람미술관 불화기획전

서울 삼청동 가람미술관은 범열로 들쭉인다. '불타의 성도와 해탈의 기쁨-일곱 명장이 그린 불화의 정수 전'을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교 상봉 스님 권영관 김의식 김용우 입체화한 전연호 조정우씨의 불화로 채워졌다.

상봉 스님의 오백나한도는 수묵화의 느낌을 풍긴다. 가로로 길게 늘어선 화폭에는 말을 타고 책을 보는 나한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육환장을 짚은 나한, 범종을 치거나 북에 위에 올라탄 나한, 앙상하게 긴 다리를 내놓은 나한, 잠선을 하거나 잠이 든 나한 등 다양한 나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오백나한도를 보면서 불고기, 계, 새우, 말 등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숨은 그림처럼 찾아낸다면 자녀와 함께 관람하기도 즐겁다.

몽환적인 느낌의 수월관음도는 조정우씨의 작품이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듯한 느낌의 칠성도에서 김용우씨는 석가모니부처님이 계신 연화세계를 중심에 놓아 칠성신앙을 한 눈에 드러낸다. 전연호씨의 나한도는 보리수위 위에 그려져 신비함을 더한다. 이외에도 권영관씨의 신중탱화, 김의식씨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탱화, 입석환씨의 아미타영산화상도 등이 전시된다. (02)722-2788 강지연 기자

보현사 사경전시회

대구 보현사에서 운영하는 보현문화관 사경 회원들이 그동안 수행의 결과물을 들고 12월 14-20일 대구 천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20명의 회원이 40점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는 <금강경> <부모은중경> <천수경> <관세음보살 42수 진언> 응용사경작품 등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신설된 제3회 서예문화대전

사경부문의 특선 준특선 입선 수상자를 비롯해 보현문화관에서 사경수행에 정진해온 한국사경연구회 회원들이 한 자 한 자 정진하며 써내려간 사경 작품들이다. 16일 오후5시 천진갤러리 전시실에서 전통사경 특강 등 전시 오픈 행사가 열린다. 이어 21일 대구 보현사 큰법당에서 마련될 동지맞이 전통사경 특별법회에서는 '원상취진언', '항마진언 법자' 등으로 사경을 하는 전통사경 강의 및 사경 실습이 마련된다. (053)254-6620 강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상표등록: 614981호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노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세계적 단화

● 방한용 탈신

● 최고의 선물

● 세계적 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색 (카멜이 특수제작)

● 방한용 탈신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주민)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범이요 철학적인 범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만 물질 문명으로서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 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거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인생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주인공은 인생이라고 부르려고 있지 않습니다.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급한 보림사 보림선원 철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철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남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목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2006년 12월 28일(목) 오후 8시부터 2007년 1월 3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번지) 02)914-6187
- 회 비: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 162, 1012, 1013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목산 합장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모집

본 대학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8기)

1. 서울 본대학 교육 안내
 - 개강일자 - 2007년 1월 8일(월) 오후 3시 (목탁 지참)
 - 출 강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5시
 - 통 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교육 안내
 - 개강일자 - 2007년 1월 6일(토)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3시간)
 -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28기)
5.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사찰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9 (한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